

2012. 4. 16 제28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2. 4. 16 제285호

산업·경제

1. 기업공개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는 회사탐방과 체험기회, 기업에는 홍보 기회 제공 (베를린市)
2. ‘都 산업진흥 기본전략’ 개정 (도쿄都)

건강·복지

3.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발표 (워싱턴 D.C.)
(토막기사) 초등학교에 철학 수업 개설 (중국 상하이市)

방재·안전

- (토막기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사고 대처를 위해 실시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실시 (뉴욕市)

도시환경

4. ‘온실가스 저감 도청 행동계획’ 수립 (도쿄도)

(토막기사) 음식물 쓰레기로 1700여 가구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 생산 (영국 서머셋市)

(토막기사) ‘지속가능한 발전 주간’ 행사 개최 (파리市)

(토막기사) ‘숲 가꾸기 공헌 인증제도’ 실시 (도쿄도)

(토막기사)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 대상 설비에 추가 (도쿄도)

도시교통

(토막기사) 혼잡도로에서의 공사에 대해 높은 과세제도 시행 (런던市)

도시계획·주택

(토막기사) 건설산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시행 (런던市)

산 업 · 경 제

1. 기업공개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는 회사탐방과 체험기회, 기업에는 홍보기회 제공 (베를린市)

○ 베를린市 산업발전동맹인 ‘네트워크 산업정책’은 2012년 5월 9일에 시민들에게 기업을 개방하는 ‘산업의 긴 밤’(die lange Nacht der Industrie) 행사를 개최함.

- 市는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경제도시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산업도시 발전 10개년 기본계획인 ‘산업도시 베를린 2010~2020’ (Industriestadt Berlin 2010~2020)을 수립함. 이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市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관심이 큰 기업, 상공회의소, 협회, 노조, 경제 지원기관과 함께 ‘네트워크 산업정책’(Netzwerk Industriepolitik)을 출범시킴. 네트워크 산업정책은 공동의 책임 하에 산업도시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34개 프로젝트를 진행함. ‘산업의 긴 밤’ 행사는 이 프로젝트 중 하나임.

- 이 행사의 취지는 기업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업무 및 생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주최 측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 가능하지만 특히 직업학교 학생, 대학생,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미리 신청해야 함.
- 올해 처음 마련되는 이 행사는, 市가 1997년 최초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시민 문화행사인 ‘박물관의 긴 밤’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짐. 참가 기업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자신의 회사 및 공장을 시민에게 개방함. 회사탐방은 13개의 투어를 통해 이루어짐. 기업은 시민들의 회사탐방 시 안내원 외에

도 인력관리부와 생산부의 담당자를 배치해 시민과의 대화 시 취업 등에 관해 안내함.

-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기업의 내부공간과 흥미롭고 다양한 업무 및 생산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 이와 구직자에게는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로결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참가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사를 현대적인 기업, 매력적인 기업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 특히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 기업문화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게는 자기 회사를 구체적으로 홍보해 전문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모두 30개 기업임. 이들 중에는 세계적인 대기업 외에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s, 작은 기업이지만 특정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세계 1~3위인 기업),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주요 참가 기업을 살펴보면 BAE배터리, 바이엘 쉐링 제약, 숄트하이스 맥주, BMW, 봄바디어 운송그룹, 보르지히 철강, 노키아 지멘스, 보다폰 통신, 바텐팔 전력 등임.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20402.1100.368275.html)

(www.lange-nacht-der-industrie.de)

2. ‘都 산업진흥 기본전략’ 개정 (도쿄都)

○ 도쿄都는 2012년 초 수립된 새로운 都 비전계획인 ‘2020년 도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상을 실현함과 동시에 세계화 및 인구감소·노령화 등으로 인한 위협을 극복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를 산업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쿄가 지닌 장점을 활용한 중장기 산업진흥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2007년 3월 제정된 ‘都 산업진흥 기본전략’을 2012년 3월 말 개정함.

-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은 ① 중점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참여 촉진, ② 글로벌 시장에서의 접근, ③ 산업 집적의 유지 및 전망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쿄都 산업진흥 기본전략’ 개정의 핵심사항】

개정의 핵심사항	내용
① 중점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향후 성장과 혁신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 - 혁신의 모태가 되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신기술·신사업 창출, 중점산업 육성 촉진)
② 글로벌 시장에서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국의 성장을 흡수하기 위한 시책 구축(해외 판로 개척 지원, 도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 성장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추진
③ 산업 집적의 유지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중심으로 입지환경 정비 등을 통한 산업 집적 유지 - 산업 집적의 발전을 위한 창업 촉진 등

- 또한 ① 새로운 성장기회 포착(성장기회), ② 경영기반 강화(경영기반), ③ 산업의 집적 유지 및 발전(산업 집적), ④ 도민의 생활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의 활성화(지역산업), ⑤ 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인재의 확보·육성(산업인력)의 5대 성장전략과 함께 이에 대한 세부전략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도쿄都 산업진흥 기본전략’의 5대 전략 및 세부전략】

5대 전략	세부전략
① 새로운 성장기회 포착(성장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 사회적 과제 해결형 산업: 건강, 환경·에너지, 위기관리 등 · 정보전파형 산업: 콘텐츠, 패션 등 · 도시기능 활용형 산업: 항공기, 로봇 등 - 글로벌 시장에 대응한 사업전개 촉진(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해외기업 유치 촉진 등)
② 경영기반 강화(경영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신기술 창출(오픈 이노베이션, 지적재산권, 디자인 활용 등) - 경영능력 향상 도모(경영혁신 노하우 보급, 경영혁신 계획 그룹화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 - 경영 체질을 강화하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엔고·전력 공급 제한에 대응, 사업체 방재대책 등) -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망 정비(기업회생 및 사업 승계,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원활화 등)
③ 산업의 집적 유지 및 발전(산업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집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조업환경 정비, 연구개발 기능 집적 촉진 등) - 다양한 주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쿄의 입지 장점 강화(중층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산업 집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업 촉진(창업자 지원 등) - 외국기업의 유치·정착 촉진(외국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등)
④ 도민의 생활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 활성화(지역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사업의 육성 도모(서비스산업 진흥, 지역 밀착형 사업 육성 등) - 상가 활성화 촉진(의욕 넘치는 다양한 노력 지원, 상가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 육성 등) - 도민 생활에 밀착한 농림수산업 진흥(수익성이 높은 농업 경영, 임업 재생, 안정적인 어업 경영 등)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관광 진흥(지역자원의 신·재발견, 다마(多摩) 지역·도서 지역의 관광 진흥 등)
⑤ 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인재의 확보·육성(산업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재 확보·육성(제조인력, 관광·MICE 인력, 농림수산업 지원 담당자 등) - 새로운 성장기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글로벌 인재, 중점산업분야 지원인력 등)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3/70m3u2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3/DATA/70m3u20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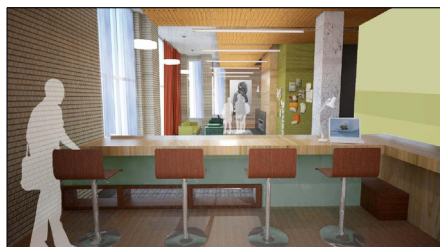
건 강 · 복 지

3.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발표 (워싱턴 D.C.)

- 미국 워싱턴 D.C.에 있고 청각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Gallaudet 대학 연구팀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Deaf Space Guidelines’를 발표함.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에서 청각 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공간 개념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함. 도시환경 디자이너에게 수화를 하는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성을 방해하는 도시환경에 대해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듦.
- Gallaudet 대학의 캠퍼스 디자인 및 계획팀이 어떤 도시환경이 청각 장애인의 삶의 질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연구함. 연구 결과 대부분의 도시들이 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도는 너무 좁거나 사람이 많고, 벤치는 대체로 한 줄로 길게 놓여 있어 서로 마주보면서 수화를 해야 하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아주 불편함.
 - 도시디자인은 눈에 띄게 자극적이어서 수화를 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밝아서 불편을 주기도 함. 이런 문제는 단순히 청각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을 줌.
- 건축가와 디자인 연구자는 청각 장애인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공간을 달리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 건물환경과 청각 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인 ① 공간과 근접학(인간과 문화 공간의 관계 연구), ② 감각 범위(Sensory Reach), ③ 이동성과 근접성, ④ 빛과 색깔, ⑤ 음향학과 전자파 장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함.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은 선명도(투명도 또는 명확성)와 그들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영향을 받음.
 - 청각 장애인의 공간 이용을 조사한 사례로 캠퍼스 식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분석해본 결과, 청각 장애인은 주로 원형 형태로 모여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의자는 언제라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가벼워야 하고, 수화를 하기 편하도록 팔걸이를 없애는 편이 좋다는 점을 발견함.
- 이 가이드라인은 스미스 그룹이 디자인한 The New Sorenson Language and Communication Center 캠퍼스 빌딩에 적용됨. 또한 Gallaudet 대학의 5개 기숙사 건물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음.
- 길고 넓게 오픈된 시선(Long, Open Sight Lines) 구현, 층간 가시성(Visibility Between Floors) 확보, 완만한 코너 각도, 많은 창문 설치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www.theatlanticcities.com/design/2012/03/designing-city-deaf/1600/)

초등학교에 철학 수업 개설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에 위치한 61초등학교는 지난 10년간 철학 수업을 진행했는데, 철학 수업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나 61초등학교가 위치한 양푸취(楊浦區)의 23개 초등학교에도 철학 수업이 개설될 예정임. 61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철학 수업을 개설하고 어린이 철학 교과과정 연구에 매진해왔음.
 - 61초등학교가 자체 개발한 ‘어린이 철학’ 교재는 市 교육개발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 철학 교육 및 연구로 市 교육과정 평가 1등을 수상하고, APEC 교육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함. ‘어린이 철학 동산’이라는 홈페이지도 개설해 어디에서나 철학을 접할 수 있게 함.
- 어린이 철학교실은 어린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생각을 정리하며, 사고의 기본을 다져주는 데 목적이 있음. 61초등학교의 철학 수업은 철학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도리를 깨칠 수 있는 철학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음. 61초등학교는 철학 수업을 통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어린이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등 교육성과가 크다고 밝힘.
 - 유치원생은 호기심이 풍부해 “왜”라는 질문을 수시로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일이 적어, 어린이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발표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어린이의 사고 개발을 위해 철학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61초등학생들의 필수 수업으로 자리 잡음.
 - 61초등학교의 철학 교재는 연령별로 초, 중, 고급 3단계로 나뉘짐. 각각 인지편, 방법론, 논리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10~15개 이야기가 연결되는 형식임. 인지편의 경우 학생들이 사물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방법론의 경우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 논리편은 학생들에게 도덕과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개발됨.

(www.people.com.cn/h/2012/0328/c25408-889940191.html)

(http://news.online.sh.cn/news/gb/content/2012-02/22/content_5146659.htm)

방 재 · 안 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사고 대처를 위해 실시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실시 (뉴욕市)

- 뉴욕市는 해마다 증가하는 가정에서의 독성물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정부 차원의 대응서비스를 실시함. 하루 300건 이상 발생하는 독성물질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방안을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함. 사후 관리뿐 아니라 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과 스티커 등도 무료 배포함. 이 서비스는 15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나뉨.
- 일반 안전사항: 건강 및 정신위생국의 일반 안내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에서 어린이가 세제를 마셨거나 노약자가 주요 의약품을 실수로 두 번 이상 복용한 경우 대처방안 등을 안내함.
- 독성물질 안내: 가정에서 쓰이는 용품 중 마시거나 묻거나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인체에 해를 미치는 물질에 대해 안내함. 주로 청소용 세제, 식물, 의약품, 살충제, 향수나 방향제, 구강 청결제 등에 관한 내용임.
- 일산화탄소 중독: 뉴욕市에는 오래된 건물 난방 시, 가스스토브나 벽난로가 있는 주택의 경우, 밀폐된 차고 안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는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함.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홍보함.
- 식물에 의한 독성물질 사고: 일반적으로 흔한 독성식물(서양 담쟁이덩굴, 흰독말풀, 은방울꽃, 나팔꽃, 백합류, 필로덴드론 등), 안전한 식물(제비꽃류, 가재발 선인장, 민들레, 장미, 자주 달개비, 제브리나 등)을 만지거나 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수록함.
-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에 대해 미리 교육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홍보함.

(www.nyc.gov/html/doh/html/poison/poison.shtml)

도 시 환 경

4. ‘온실가스 저감 도청 행동계획’ 수립 (도쿄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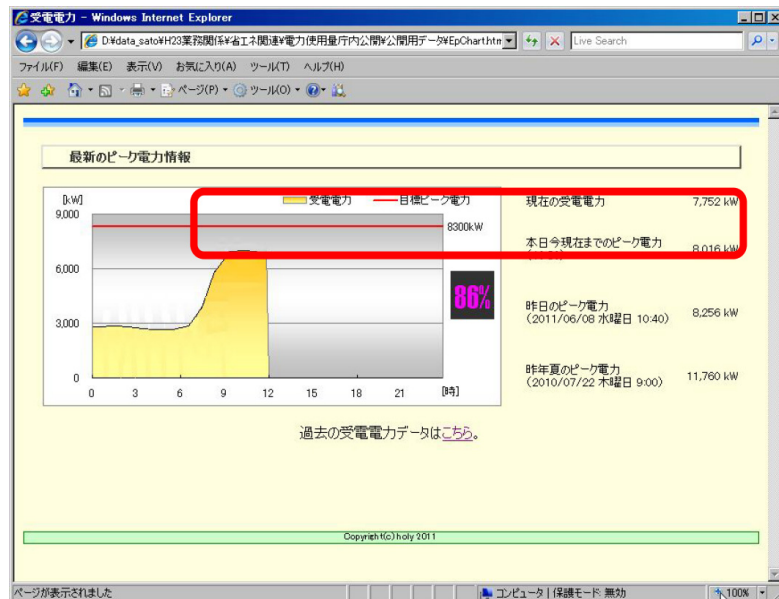
- 도쿄都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사무·사업편)에 해당하는 ‘都 온실가스 저감 도청 행동계획(温室効果ガス削減都庁行動計画)’을 2012년 3월 29일 수립함. 이 계획에서는 2014년까지 공영기업국(교통국, 수도국, 하수도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함(단, 공영기업국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3% 저감 목표).

【201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000년도 (기준)	2009년도	2014년도 목표량	2000년도와 비교	2009년도와 비교
知事部局 (공영기업국 이외 부서)	78.9만 톤	72.9만 톤	63.4만 톤	▲20%	▲13%
공영기업국	155.9만 톤	145.5만 톤	139.5만 톤	▲11%	▲4%
교통국	24.5만 톤	27.3만 톤	26.3만 톤	7%	▲1%
수도국	32.3만 톤	32.3만 톤	31.9만 톤	▲1%	▲5%
하수도국	99.1만 톤	85.9만 톤	81.3만 톤	▲18%	▲4%
합계	233.8만 톤	217.4만 톤	202.9만 톤	▲13%	▲7%

- 이 계획은 ①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약 5.5만 톤 저감), ②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저(低)탄소 기술 적극 도입(약 4만 톤 저감), ③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약 0.14만 톤 저감)의 3가지 조치를 통해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임.

- ① 지속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 사무실 내에 과다한 조명 및 에어컨 대수를 제어해 과다하게 전력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약 4.2만 톤 저감), 공기조절장치(에어컨 등)를 적정하게 운용하며(약 0.8만 톤 저감), 청사 내 사용 전력량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수요감시장치 활용을 통해 절전을 추진해(약 0.5만 톤 저감) 나갈 예정임.



【청사 내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화면】

- ②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저(低)탄소 기술 적극 도입: 신호등의 LED화 등 고효율 조명을 적극 도입하고(약 1.7만 톤 저감), 도매 시장 등에서 식료품 등을 운반하는 소형 가솔린 자동차 등을 전동화하는(약 2.3만 톤 저감) 등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③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종합운동장 및 환경과학연구소 등의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할 예정임.



【중양도매시장 내 소형 특수자동차의 전동화】



【종합운동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 도청 각 국(局)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매년 환경국이 종합해 도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추진상황에 따라 조치내용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3/70m3t2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3/DATA/70m3t200.pdf)

음식물 쓰레기로 1700여 가구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영국 서머셋市)

- 영국 서머셋市에 위치한 Walpole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 1700여 가구에 난방을 제공할 수 있는 가스 생산이 가능해짐. 서머셋市는 민간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운영함. 매립장에 재활용시설이 함께 들어와 녹색산업 단지를 구성하는 추세를 반영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설치됨.
- 바이오에너지 연료화 시설은 2013년 4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 연료화 시설에 투입될 음식물 쓰레기는 우선 2만 톤에서 시작해 3만여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만 톤은 지역 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추산한 것이며 이후 지역 내 기업 및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될 예정임.

- 공장에는 주로 채소와 과일 등의 껍질, 기타 잔반으로 배출된 음식물이 투입될 예정임.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운영업체가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영국 음식의 특성상 수분이 많지 않아 가스 생산에 앞서 수분을 투입하는 과정이 추가됨.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난 뒤 배출되는 침출수와 고형 폐기물은 토양 개량제로 재활용됨.
- 바이오 에너지 연료화가 진행되면 서머셋市는 향후 5년간 약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전력과 난방연료도 생산하는 이번 사업은 전문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녹색산업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공장은 재활용단지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인 Viridor社에서 건설하며,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1000만 파운드(약 180억 원)임. 건설과정에서 2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며, 2013년 봄 바이오가스 공장이 운영에 들어가면 정규직 6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임.
-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열과 전기 형태로 전환되어 난방 등에 활용됨. 대기오염과 자원 고갈을 낳는 화석연료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할 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음. 바이오가스를 통해 만들어진 전력은 영국 내 고압 송전선망과 연결됨.

(www.bbc.co.uk/news/uk-england-somerset-17613951)

(www.waste-management-world.com/index/display/article-display/9123974123/articles/waste-management-world/biological-treatment/2012/04/Biogas_from_Food_Waste_Facility_at_Somerset_Landfill.html)

‘지속가능한 발전 주간’ 행사 개최 (파리市)

- 파리市는 2012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주간’ 행사를 개최함. 이는 10년째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을 초청하고 있음. 2012년 행사 주제는 ‘시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이 주체적이고 양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쓰레기 줄이기,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와 물 절약, 동식물 보호, 친환경적인 이동, 책임감 있는 소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2003년 에너지 시티가 시작한 캠페인 ‘디스플레이’(Display®)는 지자체 공공건물의 환경 및 에너지 효율을 표기하는 운동임. 이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에게 수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 10~15%까지 건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음도 홍보함.
 - 각 구청, 파리기후기구(Agence parisienne du Climat), 각종 협회에서는 컨퍼런스, 영화 상영, 아틀리에 등을 주최함.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어린이의 푸른 파리’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어린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됨. 풍력발전기 만들기, 도시 야생생물, 영화 상영과 토론, 환경 관련 현장 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음. 이 행사는 놀이센터와 자료센터 강사의 도움을 받아 市 교육부의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가 기획함.
- 인터넷 사이트 ‘지속가능한 파리의 행위자’에서는 친환경적 행동을 장려하고 이 경험을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행위자란 파리에 살거나 파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기업, 협회, 상업시설, 학교, 행정, 예술가 등을 가리킴. 사이트 이용자는 사이트에 친환경 행동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방안을 실행하는 등 다른 이들과 친환경적 경험 및 이를 위한 방법, 팁을 공유함.
 - 사이트는 제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안된 사항은 심사를 통해 선별됨.

필수 심사기준은 ① 파리에서 시행하기에 적합한가? ② 직접적인 환경이득을 가져오는가? ③ 실행 가능한가? ④ 다른 사람들도 실행할 수 있는가? 등임. 추가 심사기준은 ① 혁신성, ② 공동작업, ③ 경제효과 산출, ④ 사회적 관계 형성 등임.

(www.paris.fr/accueil/societe/le-paris-vert-des-enfants-un-reve-durable/rub_9651_actu_81678_port_24616)

(www.paris.fr/accueil/Portal.lut?page_id=9654&document_type_id=7&document_id=113650&portlet_id=24060)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semaine-du-developpement-durable/rub_1_actu_113427_port_24329)

(www.acteursduparisdurable.fr/en-bref)

‘숲 가꾸기 공헌 인증제도’ 실시 (도쿄都)

- 도쿄都는 삼림 정비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도민 등이 숲 가꾸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마(多摩)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숲 가꾸기 공헌 인증제도’를 2012년 3월 29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이 인증제도는 숲 가꾸기 활동 시행 또는 협찬(자금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 및 시민 또는 삼림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삼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숲 가꾸기 활동에 대한 공헌 인증’과 다마지역 목재를 이용한 가구·도구의 제조업자 및 구입자와 다마지역 목재를 이용한 목조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마(多摩) 지역 목재 이용에 대한 공헌 인증’으로 구분됨. 전자는 삼림 정비 지원 인증제도와 이산화탄소 상쇄(Offset) 인증제도로, 후자는 가구나 도구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량 인증제도와 목조건축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량 인증제도로 구분됨.
- 인증을 받게 되면 都지사 인증서가 수여되며,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정비한 숲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도쿄 숲 가꾸기 공헌 인증제도의 종류 및 내용】

제도		내용
숲 가꾸기 활동에 대한 공헌 인증	삼림정비 지원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실시하거나 협찬한 잡초 및 잡목 제거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도쿄도가 인정 - 0.1ha 이상 신청 가능
	이산화탄소 상쇄(Offset)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초 및 잡목 제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도쿄도가 인정 - 10ha 이상 신청 가능
다마(多摩) 지역 목재 이용에 대한 공헌 인증	가구나 도구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량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마지역 목재를 이용한 가구 및 도구의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도쿄도가 인증 - 인증된 가구 및 도구를 구입한(이산화탄소 환산 1000kg 이상) 기업 등을 도쿄도가 공헌 인증
	목조건축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량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마지역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물의 건축주에게는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시공업자에게는 숲 만들기에 공헌한 점을 도쿄도가 인정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ta00.htm)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 대상 설비에 추가 (도쿄도)

- LED 조명기구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이 2011년 12월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에 규정됨에 따라, 도쿄도는 2012년 3월 30일 ‘중소사업장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도입 권장 장비 지정요강’을 개정해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 대상 설비로 추가함.
- LED 조명기구 중 램프, 옥외등이나 간판조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지원됨. 또한 LED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법’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가는 지정된 LED 조명기구를 이 날 이후에 취득해야 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대상설비 및 에너지절약 성능 기준】

구분		고유 에너지 소비 효율	평균 연색(演色) 평가 수 Ra
용도	광원 색		
LED 조명기구	주광색	70lm(루멘)/W 이상	Ra70 이상
	주백색		
	백색	60lm(루멘)/W 이상	
	따뜻한 백색		
	전구색		

－ 都 환경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 설비 등을 구입할 때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인사업세 및 개인사업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자본금 1억 엔(약 14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기조절설비, 조명설비(형광등 및 LED 조명기구), 소형보일러 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이용시스템)이 대상 설비에 해당됨.
- 설비 취득액(최대 20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의 50%를 취득연도 세액에서 감면해주지만, 그 금액이 당기 세액의 50%를 넘지 못함.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금은 다음해 세금에서 감면됨. 법인의 경우 2015년 3월 30일까지,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1.htm)

도 시 교 통

혼잡도로에서의 공사에 대해 높은 과세제도 시행 (런던市)

- 런던市는 혼잡한 도로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전기·가스·상수도 회사에 시간당 과세를 하는 영국 최초의 도시가 됨. 이 과세정책은 시장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중앙정부 교통부에 의해 승인됨. 이에 따라 2012년 6월 11월부터 이 과세제도가 실시됨.
 - 런던교통국은 전기·가스·상수도 회사를 대상으로 혼잡도로지역과 피크 타임에 공사를 하는 경우 하루에 2500파운드(약 450만 원)를 부과하게 됨.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야간과 한산한 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함.
- 런던에서는 도로공사의 난립을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2년에 이미 4000개의 도로공사가 줄어듦. 이는 지자체와 전기·가스·상수도 회사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짐. 市는 현재 2015년까지 도로공사를 33%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市는 도로공사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펀드를 조성해 도로포장방법에 대한 연구와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70명으로 도로공사를 모니터링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관리 감독하게 됨. 전담반은 2011년 한 해 동안 1000개의 부실 도로공사를 적발해 5만 6000파운드(약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gets-green-light-levy-hefty-charges-utilities-who-dig-londons-busiest-roads-june-2012)

도시계획 · 주택

건설산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시행 (런던시)

- 런던시는 건설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1억 300만 파운드(약 1860억 원)의 투자패키지를 활용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 투자패키지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국 건설프로그램’(Get Britain Building Programme)의 일환으로 조성됨. 이 투자패키지를 활용해 런던 내 12개 자치구에 2700세대의 주택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
- 영국 건설프로그램은 도시계획 허가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고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재정 문제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건설업자를 지원하고 위험부담을 공유하게 됨. 중앙정부의 주택커뮤니티청에서 평가해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배당됨. 현재 런던에서는 2712세대의 주택 건설 비용으로 이 자금이 지원되었음.
- 시는 이 프로그램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설산업에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ecures-more-%C2%A3100-million-boost-house-building-jobs-and-construction-across-london)